

중국 중심적 조공체제, 서구 중심적 식민체제, 미소(美蘇) 중심적 냉전체제 등 동아시아의 세 지역질서가 모두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광역적 지역질서라는 엄연한 사실이 자주 공연한 ‘신화’로 치부된다. 중국과 일본의 부침에 따라 엇갈리던 한반도의 명운이 초래하는 동북아 중심적 시각이 여전히 한국 학계를 풍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적 시각에서 당연한 동북아 국가로 인식되는 중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모두 동북아를 넘어 동남아를 아우르는 광역적 동아시아의 지역질서를 도모한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정태적이고 공간적으로 폐쇄적인 한국의 동북아 중심적 시각은 시간적으로 역동적이고 공간적으로 개방적인 동아시아적 전망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타개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내포와 외연에 대하여 ‘페어뱅크(Fairbank) 패러다임’은 동북아의 유교문화권으로 축소되는 반면, ‘월드뱅크(World Bank) 패러다임’은 동남아의 신흥경제권으로 확대된다.<sup>1)</sup> 사실 모든 지역에 있어서 통합은 일

1) John K. Fairbank and Edwin O. Reischauer, 1958, *East Asia: The Great Tradition*, Boston: Houghton Mifflin; World Bank, 1993,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정한 ‘결과’가 아니라 부단한 ‘과정’이다. 지역통합을 추동하는 것이 서부 유럽은 전쟁과 평화의 지정학적 계기인 반면 동아시아는 ‘기적’과 위기의 지정학적 계기이다. 폐쇄적 수입대체 민족주의가 개방적 수출지향 민족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가속하는 일본 주도적 ‘기러기떼’는 1997년의 위기 이후 중국 중심적 ‘대나무밭’으로 재편되어 간다.<sup>2)</sup> 그와 같이 경제통합이 정치통합에 선행하는 동아시아의 경우, 통합을 저해하는 각종 정치적 제약은 좌절의 원인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일 따름이다.

1982년 창간 이후 『동아연구』의 30년은 동아시아에 대한 한국적 시각의 전개과정을 고스란히 체현한다. 1980년대 중반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수용” 특집은 처음으로 동아시아의 외연을 동북아에서 동남아까지 확장한다. 그러나 1975년 베트남의 통일 이후 동아시아에서 공산진영의 균열과 냉전체제의 해체가 가속되던 국면에서 제기되는 동남아에 대한 새삼스런 관심은 한국 학계의 만성적 인식지체를 반증한다. 『동아연구』 논문의 지역적 대상이 1980년대에는 한국(41%)과 중국(29%)에 경사되고, 1990년대에는 북한(37%)과 중국(37%)에 편향되며, 2000년대에는 중국(28%)과 동남아(24%)에 집중된다(표 1). 초점 하나는 중국에 고정되는 한편 다른 초점은 한국에서 북한을 거쳐 21세기에야 동남아로 이동하는 것이다.

『동아연구』 논문의 중심적 주제는 1980년대의 역사(29%), 사상(24%), 정치(23%)에서 1990년대의 사상(27%), 경제(21%), 정치(19%)를 거쳐 2000년대의 정치(37%), 문화(17%), 경제(15%)로 변화한다(표 2). 정치와 사상을 제외한 주제가 역사에서 경제를 거쳐 문화로 이동하는 현상은 나름대로 동아시아

2) David Roland-Holst, 2006. “Global Supply Networks and Multilateral Trade Linkages: A Structural Analysis of East Asia” ([http://are.berkeley.edu/~dwrh/CERES\\_Web/Docs/Global\\_Networks.pdf](http://are.berkeley.edu/~dwrh/CERES_Web/Docs/Global_Networks.pdf)).

〈표 1〉 게재 논문의 지역 (%)

지역	1982-1990		1991-2000		2001-2010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동북아*	209	92.0	145	95.9	95	57.9
한국	94	41.4	14	9.3	16	9.8
북한	30	13.2	56	37.0	5	3.1
중국	67	29.4	56	37.0	46	28.0
일본	14	6.2	3	2.0	13	7.9
지역	4	1.8	16	10.6	15	9.1
동남아	2	0.9	1	0.7	40	24.4
동아시아	3	1.3	2	1.4	20	12.2
기타	13	5.8	3	2.0	9	5.5
합계	227	100.0	151	100.0	164	100.0

비고: \* 북한에는 남북관계가 포함되고, 중국에는 대만이 포함됨.

〈표 2〉 게재 논문의 주제 (%)

주제	1982-1990		1991-2000		2001-2010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역사	65	28.7	14	9.3	13	7.9
사상	55	24.2	41	27.1	13	7.9
정치	52	22.9	29	19.2	61	37.2
경제	14	6.2	31	20.5	24	14.6
사회	18	7.9	17	11.3	21	12.8
문화	20	8.8	19	12.6	28	17.1
기타	3	1.3	0	0	4	2.5
합계	227	100.0	151	100.0	164	100.0

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변동을 반영한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냉전체제의 이완에 따라 1980년대에는 동북아 각국의 역사적·현실적 정치변동에 대한 성찰이 심화되고, 냉전종식 이후 1990년대에는 동북아 각국의 사상적·경제적 동향에 대한 분석이 증가하며, 경제위기 이후 2000년대에는 지역협력의 진전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와 동남아의 정치변동, 경제발전, 문화접변 등으로 관심이 확대되는 것이다.

『동아연구』 필자의 경우 서강대 소속이 1980년대 36%에서 1990년대 60%로 급증한 다음 2000년대에는 다시 30% 미만으로 감소한다. 그것은 학내의 담론을 넘어 학계의 공론을 지향하는 『동아연구』의 성장을 실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연구』는 아직 어떠한 개성적 정향도 드러나지 않는 국내 학술지의 일반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실 무한한 다양성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각 학회의 학술지와는 달리 각 대학의 학술지는 일정한 경향성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학계의 다원적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동아시아의 정치적 평화, 경제적 번영, 사회적 진보를 위한 이론적·실천적 모색이 동아시아를 ‘화두’로 설정하는 국내의 유일한 학술지인 『동아연구』에 요청되는 배경이다.

이 창간 30주년 특집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전기와 전망”은 한국, 동남아, 일본, 미국의 전략적 구상을 해부한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부상하는 ‘ASEAN+3(한·중·일)’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기본적 구조로서 기능한다. ‘평화, 번영, 진보의 동아시아공동체’가 그 장기적 전망으로 제시되며, 2015년 출범하는 ‘ASEAN공동체’는 그 중심적 동력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따라 가열되는 중국-일본의 역내갈등과 중국-미국의 역외경쟁이 착종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중요한 전환적 국면에 진입한다. 이러한 ‘난국(turbulence)’의 돌파를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세력의 역동적 균형을 바탕으로 지역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한국과 동남아의 긴밀한 연대가 긴요하다는 대안이 제시된다.